



실종자
숨겨진 비극



ICRC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동아시아지역대표단

北京市建国门外大街9号齐家园外交公寓B2
우편번호 100600

전화 +86 10 8532 3290

팩스 +86 10 6532 0633

이메일 beijing.bej@icrc.org

웹사이트 www.icrc.org

©국제적십자위원회, 2009년 7월

실종자

숨겨진 비극

인간이 전쟁을 시작한 이래로 실종자는 계속 발생되어 왔다. 실종자는 발칸반도의 경우처럼 대량학살되어 이름 모를 무덤에 묻힌 희생자일 수도 있고 스리랑카의 경우처럼 거리에서 포획, 납치된 청년의 경우일 수도 있다. 또한 자택에서 체포되어 구금 중 사망하거나 비밀 장소에서 감금되어 있는 실종자도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콩고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실종자는 전투를 피해 도주하는 민간인이거나 가족과 생이별하게 된 아동일 수도 있다. 한편, 전투 중 사망한 시신의 유해가 부적절하게 관리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예는 시신이 수년간 전장에서 방치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에티오피아-에리트리아 전쟁의 예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실종자 문제는 실종된 당사자에게도 비극이지만 또 다른 희생자는 바로 실종자의 가족이다. 그들은 사랑하는 친인척의 사망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증거가 없기에 애도를 표할 수도 없고 실종자가 비밀 감옥에 있거나 외국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적과도 같은 한 날 희망을 품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며 불확실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 가고 있다. 많은 실종자 가족들이 수십 년에 걸쳐 평생 저축한 돈으로 실종된 혈육을 수색하고 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 하

고 있다. 절망하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핑계를 내 세워 변호사로 위장하여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들의 사례 또한 넘쳐나고 있다.

이 같은 고통은 비단 정서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족 중 가장이 실종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로 인해 홀로 남아 가족을 부양하게 된 아내와 어머니들은 대부분 빈곤한 삶을 영위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실종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망 또는 부재 선언을 하므로 이러한 상황은 곧 행정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 같이 더딘 행정처리로 인해 실종자 가족들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혼, 혹은 장례식을 치르는 등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이 같은 상황이 끝도 없이 길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처럼 시급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실종자 가족들이 사랑하는 친인척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으로 보장된 알 권리

친족의 생사에 대해 알 권리는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이 다루고 있는 기본 사항으로 이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제네바 제협약과 추가의정서 및 새로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실종자 문제에 대한 국제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료하다. 즉, 강제실종은 불법이며 포획, 부상,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문제는 각 국가들이 이 같은 규정을 채택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마리아 테레사 두틀리 ICRC 국제인도법 자문부서장은 “모든 사람들이 국제인도법을 존중한다면 무력충돌에서 실종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루지야의 수도 트빌리시의 동쪽 변두리에 살고 있는 굴리코 에키자쉬빌리는 거실 겸 침실로 사용되는 작은 방으로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방 천장에는 지진으로 인해 갈라진 금이 여기저기 나 있다. 올해 57세의 굴리코는 검은 옷에 푸른 눈을 하고 백발의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린 품위 있는 중년 여성이다. 마주보는 벽면에는 잘 생기고 검은 곱슬머리에 강렬한 눈빛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의 사진이 여러 장 걸려있다. 그 중에는 전형적인 증명사진 포즈를 취한 진지해 보이는 사진도 있고 잔디밭에서 발차기를 하며 뽐내는 듯한 사진도 있다.

굴리코는 그루지야와 그로부터 분리독립을 원하는 압하지야간의 1992-1993에 걸친 내전으로 인해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갔는지 회고한다.

“내 아들 베사리오니는 1971년 7월 19일 트빌리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직업은 비행 기술자였어요. 학업성적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그림도 그리고 가라테를 연습하기도 했지요. 검은 띠를 딸 만큼 잘 했습니다.

제 아들은 전쟁에 나가 조국을 위해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 7월 4일 압하지야로 떠났습니다. 7월 15일 우리는 아들이 속한 대대원들 대부분이 전사했다는 소식과 베사리오니가 무릎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와 제 남편은 아들을 만나러 비행기를 타고 병원에 갔지만 아들은 그 병원에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가진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 금니를 팔기 위해 다시 트빌리시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압하지야로 가서 아들을 찾기 시작했죠. 그 동안 제 남편도 이 투쟁에 동참했어요. 저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아들 사진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는,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키도 크고 아주 잘 생겼답니다”라고 수소문을 하고 다녔고, 숲 속의 시체더미 속에서 아들을 찾아 헤매기도 했지요. 일부 젊은 이들이 추구로브카라는 곳에 있는 낭떠러지에 던졌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그곳이 제가 가보지 못한 유일한 곳입니다. 때때로 저는 군대 막사에서 눈을 붙이기도 하고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밤을 지새기도 했지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며 연명하

“유골로 발견되더라도 상관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을 되찾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기도 했습니다.

9월이 되자 전투는 더욱 격렬해졌고 저는 딸의 등교 준비를 위해 트빌리시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봄비는 비행기에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 탄 군인들 모두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잘 생긴 아들을 찾았냐고 물었지요.

한편 남편이 7년 전 사망하기 직전에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우리 아들이 눈에 보이오. 아들이 살아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 물었지만 남편은 결국 대답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굴리코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끼다가 다시 말을 꺼냈다.

“제 아들은 22살밖에 안 된 너무나도 친절하고 재능 있는 젊은이였지요. 난 이미 돈을 다 써 버렸고 실낱 같은 희망으로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점술가들을 찾아 다니며 아들의 생사를 물었죠. 그들은 매번 아들이 살아있다고 했어요.”

“2003년 저는 압하지야와 러시아 중간에 위치한 ‘소치’라는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친구의 친구에게 돈을 주고 감옥을 수색해 보라고 했어요. 물론 제 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죠. 알렸다면 제 딸은 제가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제 인생의 주된 목표는 추구로브카에 가서 그 벼랑 밑을 수색해 보는 겁니다. 유골로 발견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제 아들을 되찾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굴리코의 아들이 실종된 지도 벌써 14년이 흘렀지만 그녀가 받은 상처는 마치 아들이 어제 실종된 것처럼 쓰라리기만 하다. 전 세계에 걸쳐 이와 비슷한 실종 건수는 수십만 건에 이른다. 북 카프카스와 남 카프카스, 발칸반도, 네팔, 스리랑카, 이라크,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남미에 위치한 거의 모든 국가에 이르기까지 세계 전역의 분쟁 지역에서 실종자의 가족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행동의 필요성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실종자 문제를 대부분 등한시해왔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실종자 문제를 완전히 가망이 없는 문제로 간주해 왔습니다” 라고 제네바 소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피에르 크레엔뵐(Krähenbühl) 운영국장은 언급한다. 그러나 1990년대 유럽의 발칸반도가 화염에 휩싸였을 때 2만 명 이상이 실종되자 실종자 가족들은 예기치 못한 정도로 사건에 대해 격렬하게 반응했고 구호요원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크레엔뵐 운영국장의 정치고문인 패트리샤 단씨는 당시 현장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실종자 가족들은 조직적으로 행동했고 우리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진행한 회의의 경과와 성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죠. 그들은 우리 사무실 앞에서 이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도록 시위를 벌였습니다.”

ICRC는 실종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지구적으로 실종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왔다. 전세계 도처에 분포되어 있는 ICRC 대표단들은 현재 수만 건의 실종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정확히 실종자 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CRC의 정의에 따르면 실종자는 국제적 혹은 국내 무력충돌의 결과 행방불명이 된 자를 일컫는다. 군인, 민간인이 모두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생사나 행방 관련 정보가 아무 것도 없는 경우를 일컫는다.



관계당국의 정치적 의지 부재와 당국에게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이들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무력충돌이나 국내 폭력사태로 인한 실종을 예방, 규명하는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종자 관련 정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공동체에 대한 증오를 기반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지도자들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 특히 대량학살이나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으로 인해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도자나 권력자는 자신들이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종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피에르 크레엔벨 ICRC 운영국장에 따르면 실종자 예방과 함께 실종자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은 “무력충돌이 발생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제적 무력충돌에서는 수감자, 피구금자 또는 사망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해를 본국에 송환하기 위하여 교전 양측에 사무국이 설치되어야 한다. 고아원 아동들이나 실함민 등 가장 취약한 민간인들이 등재될 수 있으며 군인들은 항상 인식표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충돌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최우선과제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수색하기 보다는 생존해 있는 사람들을

찾고 이들이 실종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ICRC는 다른 인도적 기구와 함께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한 민간인이나 군대와 무장단체의 일원 중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또는 포로가 된 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CRC 팀들은 폭력사태에서 기인한 니즈를 평가하고 사람들을 실종에 이르게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런 뒤 ICRC 팀들은 관련당국에 연락을 취하고 당국, ICRC 또는 기타 인도적 단체가 취할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다.

때로는 실종자 문제에 대해 조치가 거의 취해지지 않거나 아예 조치가 전무한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바로 이라크의 현재 상황에서 자주 목격된다. 이라크는 이란-이라크 전쟁, 사담 후세인 체제, 현재의 충돌 상황 등 수십 년에 걸친 분쟁으로 아주 대략적으로 추산하더라도 최소한 수십만 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베아트리스 메제방-로고 ICRC 중동/북아프리카 운영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라크는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안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어려운 경우입니다. 우리가 실종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죠. 하지만 이라크처럼 장기간 숙수무책으로 있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약간의 장비와 훈련으로 법학연구소를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ICRC의 노력

2002년 ICRC는 무력충돌이나 국내 폭력사태로 인해 실종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연구의 목표는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사건을 처리하며 실종자 가족을 돕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ICRC는 보편적 관행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해 합의하고 실종자 문제를 국제적 아젠다로 상정하기 위해 힘쓰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3년 각국 정부기관, 인권 및 인도적 단체,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 회원, 전문가, 실종자 가족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국제회의에 뒤이어 제28차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가 개최되어 회원국과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에 관한 목표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인도주의 활동의제(Agenda for Humanitarian Action)를 채택했다. 동 활동의제의 핵심적인 주장은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의 생사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후, ICRC는 실종자와 실종자 가족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ICRC는 2006년 12월 20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초안작성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강제실종자 보호를 위한 그 협약에는 어느 누구도 강제 실종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조직적인 강제 실종 관행은 인도에 반한 죄이며, 어떠한 자도 비밀 구금되어서는 안 되고, ‘희생자’란 실종된 사람과 강제 실종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을 의미하며, 각 실종자 가족은 강제 실종의 정황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강제 실종의 희생자들은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 2월 강제실종 보호협약 조인식 기념 연설에서 제이콥 켈렌버거 ICRC 총재는 “본 협약에 규정된 형사처벌 체계의 중요성”과 강제실종관행을 뿌리뽑는 데 공헌하기 위하여 각국이 본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할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름이 등록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처형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집니다.”

안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을 경우 인도적 기구 및 인권 단체가 상황을 신중히 주시하면 강제 실종 건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실종자가 발생할 경우 ICRC와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는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의 신원, 실종 당시 상황, 목격자 등 가능한 많은 관련 정보를 기록하여 실종신고를 하면 실종자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피에르 크레엔벨 ICRC 운영국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당장 내일 아침 가족들에 의해 실종자로 등록된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가지고 감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기록을 보면서 수감자들을 살펴보면 이름과 동일한 인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일단 이름이 등록된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질 확률은 매우 낮아집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강제실종이 광범위하게 자행될 확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산드라 베이다스 네팔 주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UNHCHR) 보호국장은 “현장 사무소는 실종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현재 네팔에서는 UNHCHR이 최대 규모의 현장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베이다스 보호국장은 “우리가 군대 막사를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강제 실종을 자행하는 것이 보다 어려워졌고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의 감금기간도 더 짧아졌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실종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예방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민간인 및 군대·무장단체의 일원 중 병자, 부상자, 포로의 존중, 보호
-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존중, 보호
- 가족들간 소식 교환 보장
- 무력충돌 또는 국내 폭력사태로 인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된 사람들의 신원 확인 및 설명
- 정보의 적절한 관리



실제로 실종자를 추적하려는 노력과 수감자 명단 등록작업은 민간인이 10여 년에 걸친 마오 반군과 정부군간의 유혈 내전에 휘말려 들었던 네팔에서 상대적인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적군을 지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많은 마을사람들이 포획되거나 체포되었고 수백 명이 실종되었다. 장-폴 코르보 네팔 카트만두 주재 ICRC 보호조정관은 내전 중 6천7백여 명의 억류자를 방문했다고 전한다.

이 중 운이 좋았던 예가 네팔 테라이 평원 반케 지역의 주요 도시인 네팔군지에 거주하는 24세의 경영학도 자낙 판디라는 호리호리한 청년이었다. 그는 내전 중 두 번 억류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네팔 마오 반군에 의해 하루 동안 억류되었고 일 년 뒤인 2001년 경찰에 의해 억류되었다. 경찰에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그의 가족들은 그의 행방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자낙은 마침내 감옥으로 이송되었고 여기서 ICRC 대표들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체포된 지 거의 1년 만의 일이었다. 자낙은 “대표들은 저에게 등록번호를 주었고 저는 이제 ‘내가 실종되지는 않겠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실종된다 하더라도 누군가 저를 찾을 거라 믿었죠. ICRC는 저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죠”라고 회고한다.

실종된 사람들의 이름은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ICRC 직원들은 전국 방방곡곡 집집마다 방문하여 실종자 가족들과 면담하고 정보를 수집, 상호 참조하는 등 기록

을 수집한다. 작년 2월 ICRC는 네팔 신문과 ICRC 웹사이트에 812명의 실종자 명단을 발표하여 다른 실종자 가족들도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코르보 보호조정관은 “많은 가족들이 실종자 명단이 실린 신문을 하나의 유품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종자 가족들이 찾아와 실종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 발표야말로 실종되었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데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라고 전한다.

그러나 어떤 기구도 동시에 지구 곳곳 어디에서나 활동할 수는 없다. 작년 11월 평화협정이 네팔에서 체결되었지만 아직도 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실종된 상태이다. 이 중 약 25%는 인도에 접경한 네팔 중서부에 위치한 바르디아라는 곱빚한 농촌지역에서 실종되었다. 이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타루”라는 천민 소수민족 출신이다. 내전 당사자간의 적대행위가 줄어들자 몇몇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조직을 결성했다.

ICRC의 지원으로 이 조직은 200 가족 이상으로 구성된, 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충돌 희생자 위원회로 성장했다. 위원장은 말수가 적으면서도 점잖은 분위기를 지닌 31세의 학교 교사인 크리슈나 초더리이다.

지난 2001년 11월, 역시 교사인 크리슈나의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길에 나섰다. 그 때 갑자기 무장세력이 그의 자전거를 도랑에 빠뜨리고 길에서 그를 체포했다. 열흘 뒤 아침 크리슈나 자신도 집에서 체포되었다. 크리슈나는 막사에서 아버지를 볼 수 있었고 겨우겨우 150 루피를 아버지에게 건네 줄 수 있었다. 며칠 후 크리슈나는 집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 났지만 아버지의 소식을 다시는 들 수 없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크리슈나는 공포에 질려 침묵으로 일관했다. 크리슈나는 “사람들이 너무 공포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개가 짖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라고 회고한다.

크리슈나의 집은 네팔군지에서 차로 한 시간 가량 걸리는 바이다리는 마을의 바르디아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의 길가에는 자전거, 길 잃은 소, 화려한 색으로 페인트칠을 한 트럭, 유엔 차량과 짹짹 내리쬐는 해를 가리기 위해 양산을 휴대하고 있는 보행자들로 분주하다. 길 옆의 편평한 초록 들판에는 쌀, 옥수수, 보리들이 심어져 있고 진흙으로 뒤덮인 버팔로가 땅을 갈고 있다. 주 도로에서 좀 떨어진 비포장도로에는 커다란 찬장 크기의 진흙 오두막집들이 모여 있는 주거지역으로 이어진다.



REUTERS/MARIANA BAZO, Courtesy

초더리의 집은 진흙이 아니라 잿빛 콘크리트로 지어진 입방체 모양으로 다른 집들보다 비교적 부유해 보인다. 집 앞에는 염소 한 무리가 묶여 있다. 이 집엔 대부분이 여성인 열 두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밝은 색깔의 사리를 입고 플라스틱 구슬과 라인석 등으로 치장을 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몇 번이고 계속해서 들려주면 혹시 어떤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다. 이야기가 너무 반복되다 보니 들어도 별 감각이 없을 정도이다.

일이 벌어진 건 한밤중이었고 우린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트럭이 갑자기 집 앞에 서더니 남편의 이름을 호명했고 남편을 구타한 다음 어디론가 끌고 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 후로 그들은 남편을 다시 볼 수 없었다. 때로는 정부군이 집을 찾아오기도 했고 때로는 반군이 찾아오기도 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과 함께 끌려가겠다고 간청했고 어떤 아내들은 남편이 자식을 부양할 수 있도록 남편 대신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하기도 했다.

최하층 계급 출신의 사비타 네팔리라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은 한 무리의 남성들이 남편의 눈을 가리고 팔을 벌리게 한 채 기둥에 묶고 심하게 구타를 가한 뒤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정글로 끌고 가 버리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전한다. 남편을 끌고 간 무리들은 만약 이 사실을 입 밖에 내면 다시 이 집을 방문해 온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더 이상 짓이 나오지 않았고 그녀의 아기는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 사비타는 현재 마을의 한 끝자락에 위치한 지저분한 판잣집에서 어머니 그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사비타는 눈가의 눈물을 닦으며 “이게 나의 업보라면 할 수 없지요. 적어도 내 딸을 키울 재정적 보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이 빈곤한 국가에서도 이들은 최극빈층에 속한다. 네팔에서는 최근에서야 계약노예제도가 불법화 되었다. 공립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한 달에 3달러 가량 하는 교과서와 문구류를 구입해야 하고 이는 많은 가족들에게 여전히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거의 대부분의 실종 사례에서 실종 당사자는 바로 가장이며 남겨진 아내는 발일이라도 하기를 원하지만 일거리가 그다지 많지 않다. 지금 당장 이들 아내들의 최대 걱정거리는 유해 수색이나 사법처리가 아니라 어떻게 아이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그들은 정부로부터 단 1 루피도 보상받지 못 했다.



국제인도법

국제인도법에는 다음과 같이 강제실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된 친인척의 생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충돌당사국은 보고된 실종자를 반드시 수색하여야 하며 실종자 가족의 문의사항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 각 분묘등록소는 분묘의 정확한 위치와 표지 및 그 곳에 매장되어 있는 사망자에 관한 상세를 교환하여야 한다.
- 국제적 무력충돌의 당사국들은 부상자, 병자, 난선자, 전쟁포로, 기타 자유를 박탈당한 피보호자 및 사망자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조속히, 불리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 포로가 된 전투원과 적대국의 지배 하에 있는 민간인은 그들의 생명, 존엄성, 인권 및 신념에 대하여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모든 폭행과 보복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들은 가족과 서신을 교환하고 구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그저 기다릴 뿐이다. 그들에게는 마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이들은 이름을 명단에 올리고 국내외 단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지난 1월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바로 이 집을 방문하여 그들의 사정을 대외에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월에는 무력충돌 희생자 위원회는 버스로 20시간을 이동하여 카트만두에 도착,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인권 운동가들도 소수 참가했지만 언론의 모습은 그다지 보이지 않았고 정부 측 참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네팔 카트만두 주재 ICRC 사무소는 실종자 문제에 진전이 있다면 이는 다만 작은 조치들이거나 밀실협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코르보 보호조정관은 실종자 문제는 진전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수십 년이 걸리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ICRC는 네팔 바르디아 지역에서 타루 소수민족을 위해 타루어로 방송되는 라디오 미니시리즈를 재정지원하고 있다. 7분짜리 드라마로 구성된 이 방송에서는 실종과 관련된 실제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실종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홍보하고 ICRC에 실종자를 등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강조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연출을 담당하고 있는 에크라지 초더리(앞서 언급된 크리슈나 초더리와는 아무 연관성 없음)는 라디오 FM 방송국들이 타루어 프로그램을 거의 방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전 중 이 지역에 특히 실종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에크라지 초더리는 “내전동안 타루족들은 아무런 정보를 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종자를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 했고 이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라고 말한다. 크리슈나 초더리도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와 줄 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한편, 카트만두 주재 ICRC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정부 당국과 접촉을 갖고 네팔정부가 1977년 제네바 제협약 추가의정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및 최근에 채택된 유엔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등 관련 법과 협정을 비준 또는 가입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ICRC 요원들은 또한 네팔이 국내법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도 권고하고 있다. 그들은 네팔 당국과 보안군이 국제인도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네팔경찰 인권팀 의 마노지 쿠마르 경감은 분쟁 중 당면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국제인도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지적한다. ICRC는 군인들을 위한 국제인도법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과 함께 끌려
가겠다고 간청했고, 어떤 아내들은
남편이 자식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남편 대신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사법의 중요성

“실종자 박물관 뒤에는
텅 빈 묘지가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ICRC의 목표

ICRC의 목표는 각국 정부, 군대, 일반 대중, 국제기구 및 국내기구들 (적십자운동 포함)로 하여금 무장충돌이나 국내 무력사태 기간 동안 실종된 사람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다.

친인척의 생사에 대한 불확실성은 전세계 도처의 수많은 가족들이 직면한 가혹한 현실이다.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들이 실종된 친인척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 사랑하는 이들의 생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지역사회들은 그들의 정상적인 삶을 불가능하도록 만든 폭력사태를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다. 그들의 근심은 교전이 끝난 후에도 수십년간 지속된다. 그들은 개인 혹은 지역사회의 신분으로 사회 복귀와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고풍 들어가는 상처는 때로는 실종이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사회 조직에 해를 끼치며 단체간, 국가간 관계를 저해한다.

많은 국가에서 잔악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허용한 사람들이 전란이 종료된 후 권력을 잡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해 ICRC를 비롯한 여러 기구들이 미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난 5월 ICRC는 네팔에서 3일 일정으로 국제인도법과 실종자 문제에 관한 원탁회의를 개최했고 정부관리, 시민단체, 국회의원들이 각각 따로 참석했다. 원탁회의 첫날 실종자에 관한 주제가 제기되자 회의는 열띤 분위기로 무르익었다. ICRC 직원들이 900명 이상이 아직도 행방불명이라고 밝히자 일부 정부관리들은 이 수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사기 사건을 인용하며 수천 명의 네팔인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매달 출국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사람들이 모두 강제 실종되었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메리 웨른츠 ICRC 네팔 대표단장은 “이 문제를 부인한다고 나라에 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답변을 한다면 당국의 도덕적 위상이 정립될 것입니다”라고 지적한다.

ICRC는 네팔당국이 실종자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실종자 가족의 물질적, 법률적, 심리적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장기적 임무를 띤 실종자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옹호하고 있다. 장기적 교착상태를 피하기 위해 실종자위원회는 어떠한 정치적 행동이나 사법적 절차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코르보 조정관은 “실종자 문제가 정치적으로 다루어지면 실종자 가족들은 결코 그 해답을 얻지 못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어진 임무와 경험을 바탕으로 ICRC는 오직 인도적 문제에 집중한다. 사법처리는 네팔에서 실종자위원회 설치를 위해 열심히 로비를 펼치고 있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등 다른 기구에서 다루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대법원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 유엔 기구인 UNHCHR의 중점과제는 “불처벌 관행을 없애자”는 것으로 ICRC의 중점과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산드라 베이다스 네팔 주재 UNHCHR 보호국장은 “우리는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종자의 행방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책임과 배상 문제도 확립하려 하고 있다”고 전한다.

국제법률가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도 이와 같은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수잔 애플야드 아태지역 프로그램 담당관은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된 실종자 가족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균요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사법처리는 민간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야드 담당관은 스리랑카의 예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80년대 말 만 2천 건의 실종이 발생했고 1990년 중반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이 실종 사례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야 했을 두 가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사법처리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 실종이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리랑카에서는 다시 실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팔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다시 재발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제기구들은 그 사회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내 당국이 화해로 이르는 길에 도달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구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사라예보에서 ICRC 대표단장을 역임했던 베아트리스 메제방-로고는 당시 내전에 대한 생생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보스니아에서는 아직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못 했습니다. 수많은 시신들의 신원이 확인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과 화해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지식인들에 의한 진정한 노력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국이 관여하는 메커니즘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당국은 이 문제가 자기들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전한다.

실종자 문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어마어마하다. 보스니아에서 실종자 수는 만3천명 정도 되지만 아직도 강제 실종을 자행한 자들을 용서하지 못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 하는 먼 친척들의 수를 고려한다면 이 수치는 10배, 아니 20배 정도 늘려 잡아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종자 가족들의 니즈는 우선적 고려대상은 아니며 이는 이 같은 일반적 마비 현상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행정적 대개혁이 이루어지거나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키프로스에서는 양측을 대표하는 법의학자들로 구성된 공동팀이 집단무덤에서 시신을 발굴하는 데 무려 40여 년이 소요되었다. 스페인에서조차도 내전이 종식된 지 7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수만 구의 시체가 매장되어 있는 미확인 매장지의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루지아에서도 이 같은 정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트빌리시가 내려다보이는 허름한 언덕 위에 방 세 개의 실종자를 위한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박물관 입구에는 그루지아어로 “기다림”이라는 의미의 “Molodini”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박물관 내부 벽은 젊은이들의 흑백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있고 권투장갑, 검정 발레화, 학위증 등 여러 가지 소지품들이 탁자 위에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건물 뒤에는 묘비가 세워질 자리에 풀만 무성하게 자란 거의 텅 빈 묘지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묘지 옆에는 콘크리트와 녹슨 철제 대들보가 험하니 드러난 짓다 만 교회가 위치하고 있다. 실종자를 기리기 위한 이 교회는 자금 부족으로 십여 년 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이 교회는 그루지아의 실종자 문제의 현 상황을 가장 적절히 비유하고 있는 상징물이라 할 것이다.

“참석한 가족 중 반은 죽은 자를 위한 장소에
가서 촛불을 밝혔고, 나머지 반은 산 자를 위한
장소에 가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루지야-압하지아 분쟁은 1992년 발발하여 1993년 정전으로 끝났다. 평화과정은 순조롭지 못 했고 양측간 적대감이 진정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현재 천8백명의 그루지야인과 135명의 압하지아인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반은 군인, 반은 민간인이다.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시신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전투가 일어난 장소인 압하지아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신이 정확히 어느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교전 양측에는 각각 실종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 위원회는 각각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서로 거의 교류가 없다. 분쟁이 발생한 지 14년이 지난 현재 ICRC는 이 지역에서 아직도 실종자 문제에 대해 노력하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사무엘 에모네 ICRC 보호조정관은 “실종자 문제가 정부 관심사의 최우선순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당사자간 대화가 전혀 없는데 가운데 매장지 위치에 관한 논의 없이는 실종자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라고 전한다.

그루지야에서는 대부분의 실종자들이 남편이 아닌 아들들이다.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특히나 고통스럽다. ICRC 트빌리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그루지야인인 케티 아프리도니제는 이십 여 실종자 가족의 기도회에 참석했던 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정교회에서는 사람이 사망했느냐 생존해 있느냐에 따라 촛불을 켜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참석한 가족 중 반은 죽은 자를 위한 장소에 가서 촛불을 밝혔고, 나머지 반은 산 자를 위한 장소에 가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실종자가 아마도 사망했을 것이라 추정하기에 이르렀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측 당국은 비밀 억류지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제 실종자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 속에 빠 한 조각이라도 들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사망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다.

트빌리시에서 차로 2시간 가량 떨어진 하슈리라는 마을에 사는 니노 솔라베리제라는 여인은 달콤한 터키 커피를 대접한

후 19세의 나이로 그루지야 특수부대에 입대해 아들의 사진을 꺼내 보여준다. 사진에는 뒤로 넘긴 머리를 한 다부진 체구의 청년이 소총을 어깨에 걸치고 손에는 담배를 쥔 채 서너 명의 친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불과 6개월간 기본군사훈련을 받은 그는 1992년 11월 압하지야행 기차에 몸을 실었고 그 후로는 소식이 완전히 끊겼다. 솔라베리제의 남편은 1년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었다. 아들이 전에 근무하던 부대 막사에서 잠을 자고 소문이 있는 곳은 어디로든 쫓아다녔다. 한없는 슬픔에 잠겨 있는 솔라베리제는 “난 진실을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 진실이 건디기 힘든 너무나도 쓰디쓴 것이라 해도 진실을 안다면 내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녀의 이웃인 니나 코르티아쉬빌리도 역시 아들이 전쟁터로 떠나는 날이 아들을 본 마지막 날이 되고 말았다. 그녀는 아들이 떠난 후 몇 명의 남자들이 관을 들고 찾아와 아들의 유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했던 사건을 떠올린다. 그들은 아들의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으니 관을 열어 보지 말라고 했으나 그녀는 결국 관을 열어 보았고 관은 텅 비어 있었다. 니나 코르티아쉬빌리는 “나는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들이 왔을 거라고 확신하지요”라고 말한다.

한편, ICRC는 양측 당국이 서로 협상을 하고 궁극적인 타개책을 위한 기초작업을 준비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ICRC는 치과기록, 의복, 소지품 등 사망 전 자료를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수집하여 시체가 발굴되었을 때 신원확인을 위해 사망 후 자료와 비교해 보는 작업을 재정지원하고 있다.

ICRC는 슈알라 드로디 ICRC 지역법의학고문의 주도 하에 유해의 조사, 회수, 분석 등 현지 법의학 전문가들을 교육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슈알라 드로디 고문은 “여기에도 현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 현지 전문가들도 대량의 유골을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ICRC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현지 전문가들에게 보다 폭 넓은 배경을 인지시켜 그들의 전문적 식견을 실종자라는 문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라고 전한다.

실종자 가족 모임

실종자 가족 네트워크나 모임은 혈육의 실종이라는 비극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인 단체이다.

실종자 가족 모임은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상부상조, 실종자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니즈 충족을 위한 지원
- 실종자 가족들이 단순히 희생자가 아닌 실종자 문제 활동가(activist)로서의 역할 강조
- 정책입안자에 압력 행사
- 실종자 문제 및 실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
- 책임 당국이 실종자 문제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감시

법 의학: 실종자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적 조치

“구덩이 하나와 뼈, 두개골 옷 조각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법의학 전문가들을 둘러싸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사람의 유해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신이 잘못된 장소에 보관되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분산될 수 있다. 최근에는 모든 실종자 파일에 법의학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2003년에 설립된 ICRC의 법의학팀은 아직 신생기관으로 직접적인 발굴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관련지침을 제공하고 현지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방법적 조정을 지원하기도 한다. 현재 ICRC는 표준화된 사망전·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제네바 소재 ICRC 법의학팀의 법의학조정관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모리스 티드발-빈즈 박사로 1980년대에 창립된 아르헨티나 법의인류학연구팀(EAAF)의 창설자 가운데 한 명이다. 모리스 티드발-빈즈 박사는 “5월의 광장”이라는 할머니들의 모임이 어떻게 법의학이 군부독재시절 실종 아동들을 찾는 도구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설명한다. “아르헨티나에서 젊은이들이 실종되거나 부모가 죽음을 당하면, 그들의 아이들은 군부나 지원자들에게 입양이 되곤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고 유전학자, 법의인류학자 등 과학자를 찾기 위해 전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1983년 정권이 바뀌고 이 방면 과학자들이 아르헨티나에 초청되어 아이들과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혈액 샘플을 비교하는 최초의 혈액유전학 절차를 수립했다.

한편, 군부독재정권의 희생자가 묻혀 있는 집단 무덤이 불도저로 무차별하게 발굴되면서 증거가 훼손되었다. 희생자 가족들은 독립 수사관을 요구했고 전세계 최고의 법의학 전문가 대표단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젊은 과학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이들 젊은 과학자들은 후일 EAAF를 구성하게 되었다. EAAF 소속 법의인류학자들은 먼저 자국 아르헨티나에서 시신 발굴과 신원확인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하는데 주력한 후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전문적 역량을 발휘했다.

세계 각지

ICRC는 현재 다음과 같이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수십 개의 국가에서 실종자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아프리카: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나미비아, 소말리아, 수단, 짐바브웨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유럽: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구유고 마케도니아공화국, 러시아, 그루지야, 세르비아(코소보)

미주 지역: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과테말라, 아이티, 페루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이란,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모로코

한편, 발칸반도에서는 역사상 가장 자원집약적인 법의학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는 형사사건수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모리스 티드발-빈즈 박사는 “당시 국제형사재판소는 희생자의 신원보다는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가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 실수가 발생했다”고 전한다. 그 이후 시신의 신원확인작업이 우선과제가 되었고 사망자의 시신은 사망 당시 거부되었던 존엄성을 마침내 부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베아트리스 메제방-로고 대표단장은 다음과 같이 상황을 회고한다. “스레브레니차에 있는 최근 발굴된 집단 매장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마치 시신을 던져 넣은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놓여 있는 유골들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수년간 실종자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시신 발굴 작업을 하는 바로 그 장소에 제가 가 있었던 거죠. 구덩이 하나와 뼈, 두개골, 옷 조각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의학전문가들을 둘러싸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광경은 사람을 매우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베아트리스 메제방-로고 대표단장은 다음과 같이 상황을 회고한다. “스레브레니차에 있는 최근 발굴된 집단 매장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마치 시신을 던져 넣은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놓여 있는 유골들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수년간 실종자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시신 발굴 작업을 하는 바로 그 장소에 제가 가 있었던 거죠. 구덩이 하나와 뼈, 두개골, 옷 조각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법의학전문가들을 둘러싸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광경은 사람들을 매우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이야말로 실종자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종자 문제는 모든 단계에서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도전과제이다. 베아트리스 메제방-로고 대표단장이 지적하는 것처럼 실종자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ICRC 직원 사무엘 에모네도 마찬가지로 2년 전 트빌리시에 도착한 이래 자신의 기대수준을 조정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실종자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전쟁 부상자를 위한 응급수술반을 일주일 만에 똑딱 만들어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실종사건이라도 수십 년이 걸리게 마련이므로 이런 점에서 자신이 어떠한 기여를 하더라도 겸손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노력

실종자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가족이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이다. 광범위한 노력만 있다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전세계의 실종자 가족들은 적어도 실종자의 행방에 대한 답변을 받을 권리는 있기 때문에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루지아에 사는 니노 솔라베리제는 알 수 없는 아들의 생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실종 상태보다 낫죠. 할 수만 있다면 실종 상태의 아들 보다는 죽은 아들의 무덤을 갖는 편이 낫겠어요.”



임무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전쟁과 내전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ICRC는 분쟁 발생 시,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구호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한다. 또한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인도법과 보편적인 인도주의 원칙을 보급하고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ICRC는 1863년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모체이다.

실종자

알 권리



ICRC

Missing persons A hidden tragedy

0929/06T 12.2007 1000